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영암 군민의 발’이자 선진교통문화 실천의 선두주자

(주) 남주교통

친절과 준법은행으로 지역민 사랑 듬뿍 받는 내실있는 사업장
고용환경 개선 ·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회사

근면과 성실, 우애와 봉사, 화합과 협동을 사훈으로 지난 20여년 가까이 영암군민의 발이 되고 벗이 되었던 남주교통

버스는 모범적인 대중교통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친절과 준법은행으로 선진교통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치단체 강한 회사다.

△나는 규정된 속도를 지켜 운행한다 △나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 운행한다 △나는 지정된 차로를 지켜 운행한다 △나는 승객을 가족처럼 모신다 △나는 승객에게 항상 친절한다 △나는 다정다감 지키기운동은 오늘날 남주교통이 있게 한 계율처럼 되었다. 운전자들은 이같은 다정다감 지를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찬사받는 모범 기사로 거듭나고 있다.

1999년 10월 2일 남주교통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영암군민과

처음 마주했다 영암군내 구석구석을 누빌 뿐만 아니라 나주터미널까지 운송권역으로 하고 있다.

24대로 영업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비해 현재 17대리는 차량보유 대수가 말해주듯 회사 경영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고 고달프다.

그럼에도 영암지역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상 만큼이나 주민들의 신뢰 또한 가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위상을 구축했다.

이처럼 탄탄한 지위를 확보하기까지는 29명 종사자의 몸과 땀 서비스 정신과 헌신적인 회사 사람이 있었다. 회사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업의 특성상 연중 무휴로 불철주야 영암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단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업계 모범기업으로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고객을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생명존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무사고 안전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친절하게 모시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차된 시간을 엄수해 제 때 고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시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것을 고객과의 약속이자 서비스사업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수시 안전교육은 물론 무결점 예방정비로 고장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없애고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남주교통이 오늘날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하나 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회사의 발전이 곧 조합원의 발전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일치단결해 매진하고 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도 영암군민의 발이 되어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남주교통. 노

사가 하나돼 노사불이를 교과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대손손 없이 달릴 버스를 그려 본다.

최남규 기자/영암=조대호 기자



“노 · 사가 따로 없는 가족 같은 회사 만든다”

박상영 대표이사

- ▶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정부 시책인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함에 노 · 사가 협력하여 갈등이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근로복지를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들이 항상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환경조성은 근로자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 노사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생각하나?
 - 노 · 사간 벽이 없어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하며 회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가 동참하는 가족 같은 회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 취임 후 6년 동안 노사가 하나가 되어 갈등과 분쟁이 없는 회사로 이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자부한다
- ▶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



- 늘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당부한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가 창출된다는 것은 무말할 나위가 없다.
- ▶ 노동조합에 당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근로자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모든 근로자가 대중교통의 서비스맨이며 영암군민의 발이며 내가 군민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회사의 경영 애로 타개에 노조가 앞장선다”

심귀식 노조위원장

- ▶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회사와의 어떠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에 풀어나간다. 따라서 분쟁이란 있을 수 없다.
- ▶ 노조를 이끄는 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조합원이 있어 노동조합이 존재하기에 늘 가족이라는 개념에 합리적면서도 원만한 근로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 ▶ 조합원 단합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 단합을 위해 매주 수요일 휴무자들과 등산을 하고 있으며 늘 새벽마다 안전운행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점심식사와 함께 하면서 조합원의 그날 그날 애로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다
- ▶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의 정도는?
 - 회사는 늘 노동조합을 인간적이고 세심한 배려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조합원들의 애사심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



-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한다
- ▶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 운수업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시대가 앞으로는 한계가 올 것 같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를 뵈다보니 준공영제가 필수가 되어야 운영자체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남규 기자